

### 2004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지난 4월 14일(수)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 제이 드룸에서 200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 수석부회장으로 벽산건설(주) 정종득 사장, 부회장으로 대림산업(주) 이용구 사장, 코오롱건설(주) 민경조 사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주택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외부 주택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 서울시 11차 동시분양 분부터 시행해 온 분양가자율규제심의가 사전 가격담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있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를 매월 세번째 화요일로 정례화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 건교부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4월 26일(월) 장미의 언덕(경기도 과천 서울랜드내)에서 이방주 신임회장과 건교부 출입기자와의 상견례를 겸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방주 신임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각종 규제 도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부지역의 오피스텔 청약 과열 현상을 마치 전부가 그런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이방주 회장, 국무총리와 기업대표 오찬 간담회 참석

최근 부진한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계의 불안심리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3월 23일(화)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기업대표와의 간담회가 총리공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경제단체 및 기업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주택업계를 대표해서는 이방주 회장이 참석하여, 준농림지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제도 강화 등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권한 부여 및 일박기 행위를 엄벌 조치해 줄 것과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잔금은 보증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부담을 완화토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제2차 이사회 모습

## 주택사업관련 법령 설명회 개최

4월 8일(목)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사의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관련 법령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46개 회사에서 213명이 참석하여 개정된 법령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황성규 서기관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법」 강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도시정책과 엄정희 사무관이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규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설명이 있었으며, 평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열띤 질의와 응답시간도 가졌다.

## 건교부 주택국장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

지난 4월 30일(금)에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최근 주택건설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권도엽 주택국장의 주재로 '주택국장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주택업계는 10.29대책 이후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며,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될 경우 금년 목표(52만호)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어 1~2년후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에서 김종철 상근회장, 송문헌 부사장(삼성물산), 김득식 상무(벽산건설), 박희운 상무(LG건설), 김종호 상무(대림산업), 곽동원 상무(현대산업개발)가 참석하였으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관성있는 주택정책 추진, 택지공급 확대 및 투기 과열지구 신축적 운용, 소형 주택건설의무비율 탄력적 적용 등 주택 건설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주택사업관련 법령 설명회

주택사업관련 법령 설명회 전경 모습